

희·망·젼·속

2 저출산 시대... 조대병원 신생아실

“소중한 내 아이 얻어
올 헨 힘이 날 겁니다”

“으아앙~”하는 울음소리가 조선태병원 수술실에 울렸다.

1일 새벽 0시 20초, 주글주글한 분홍색 피부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2.91kg짜리 아이가 자지러질 듯 울어대자 최상준(48·산부인과) 교수와 지켜보던 간호사 등 12명의 의료진들의 입에서 ‘와~’하는 탄성이 들렸다.

땀줄을 자르고 건강 상태를 검사한 뒤 간호사가 의식이 거의없는 엄마에게 첫 인사를 시켰다.

희망안은 김승인·이경희씨 부부

수술실 밖에서 불안함과 기다림에 지쳐 있던 김승인(43·완도군 신지면)씨도 “따님 낳으셨습니다. 산모도 건강해요”는 말에 긴장된 얼굴을 폈다.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무엇보다

소중한 새해 첫 소식. 지난 한 해 무던히도 힘들었던 김씨에게 둘째 딸과의 첫 대면은 새해 새로운 희망으로 설레임을 주는 순간이었다.

뫓과 미역을 양식하는 김씨는 지난해 1kg에 3천800~4천원하던 톳 가격이 1천950원으로 폭락하는 바람에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그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고사리보다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본 뒤 나직이 속삭였다.

“아빠가 지난해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가와 줘서 힘이 된다, 고마워.”

새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가 챙기고 나설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진 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수)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6명. 전남지역 신생아 수는 지난해 1만3천531명에 불과, 처음으로 사망자수보다 적었다.



김승인씨가 1일 새벽 0시 20초 조선태병원 수술실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새 생명은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있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 생명은 우리사회의 미래

이같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경제 성장률 둔화,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등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발목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젊은 세대들 사이의 출산 기피 현상은 자칫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높다.

이 때문에 2006년 새해엔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최상준 교수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며 “신생아 출산 소식을 많이 접해 활력있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광주시의 새해 첫 아이는 남구 모아산 부인관에서 1일 새벽 0시 1초에 태어난 김성주·이경자씨의 셋째 아들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취재 협조 : 조선태병원〉

유치원·고교 수업료 3%인상

연간 유치원 24만4천원·고교 127만원으로 조정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올해 광주지역 일선 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가 3%씩 오른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육여건 개선과 확충,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수업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체능계와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교는 1급지를 기준으로 연간 3만7천200원이 올라 127만800원으로 조정됐다.

유치원(1급지 가)은 7천200원이 오른 24만4천800원으로 인상된다. 단 입학금은 유치원과 고등학교 모두 2004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방송통신고는 수업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상안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www.gen.go.kr)와 게시판에 공고했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피임약 광고 허용

방송위, 올해부터 시행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의결.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 직업소개업 등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각각 허용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연합뉴스

무등산·향일암 등서

가족단위 소망 빌어

병술(丙戌)년 새해 첫날인 1일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한 바람부는 이른 새벽부터 일출을 기다린 수만명의 해맞이객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한해의 소망을 기원했다.

여수시 돌산을 향일암에서는 5천여명의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든 가운데 ‘해뜨는 도시 여수 향일암에서 새해 소망들’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향일암 일출제’가 펼쳐졌다.

해남군 송지면 팜갈마을에서는 ‘제10회 팜갈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열렸고, 고흥 금산면 거금도 앞 바다 ‘남해고속 카펠리7호’ 선상에서도 ‘2006 선상 해맞이 축제’가 개최됐다.

무안 도리포와 영광 백수해안도로,

고흥군 봉래면 하반마을 등에서도 마을 단위로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눈이 녹지 않은 광주 무등산은 산 정상에서 새해 첫해를 보려는 6천명의 시민들로 북적됐고,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도 인근 주민 1천여명이 몰려들어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외 지리산 노고단에도 500여명

의 등산객이 추운 날씨 속에서 첫해를 기다렸다.

산을 찾은 시민들은 당초 날씨가 흐려 일출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서 이날 오전 7시40분께 동쪽 산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일출의 장관을 만끽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남 소방본부 96억 들여

119 정보시스템 구축

전남도소방본부는 오는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등 모두 96억원을 들여 소방지리정보시스템, 119 상황실 통합 등 ‘119 긴급구조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통합상황실’, ‘관제시스템’, ‘119수보대(신고를 받는 장비 일체)’ 등 3종을

구축한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 오는 5월까지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선진 구축사례 벤치마킹, 사업 참여업체 기술평가 및 조달계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이어 6월부터 12월까지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설치공사 및 ‘119수보체계’를 소방본부 상황실로 일부 통합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오후엔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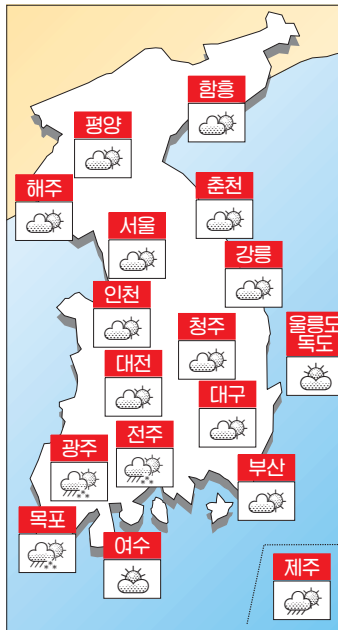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나 비 온 뒤 개쨌다.

1월 2일

(음 12월 3일)
◇전국날씨



광주	눈/비 온 뒤 갠	-2~6℃
주요도시	눈/비 온 뒤 갠	-1~6℃
여수	구름 많음	1~6℃
대구	흐린 뒤 갠	-1~7℃
부산	흐린 뒤 갠	-4~6℃
서울	흐린 뒤 갠	-3~6℃
인천	흐린 뒤 갠	-4~6℃
대전	구름 많음	-2~7℃
전주	흐린 뒤 갠	-5~6℃
제주	눈/비 온 뒤 갠	-4~4℃
울릉도	눈/비 온 뒤 갠	-2~7℃
독도	눈/비 온 뒤 갠	-2~6℃
영남	흐린 뒤 갠	-4~6℃
영남	눈/비 온 뒤 갠	-3~5℃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3:14
여수 밀물 < 10:55

▲해돋이 07:41 ▲해질 17:32 ▲달돋이 09:41 ▲달질 19:54
◇주간날씨 기상안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날씨						
최저/최고	-4/5	-4/3	-5/1	-7/0	-6/1	-5/2

‘전남산 굴’ 제철 만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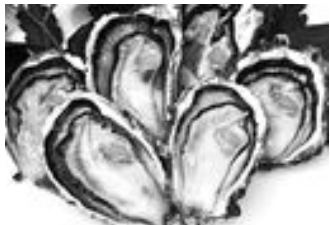
작황 좋아 서울·대전 등서 ‘별미 여행’

택배 주문도 40% 늘어

겨울철 최고 건강 식품으로 꼽히는 전남산 굴(石花)이 제철을 맞아 인기다. 알이 짙 차맛이 뛰어나고 글리코겐과 비타민 함유량이 높기 때문. 장흥·고흥·여수·해남 등 주요 굴 생산지에는 신선한 굴 맛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타지역에서의 택배주문도 크게 늘고 있다.

장흥군 용산면 남포리에는 주말이면 굴을 맛보기 위해 광주나 목포, 멀리서는 대전이나 서울에서 500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 남포리는 이청준의 소설 ‘축제’를 일권택 감독이 1995년 영화로 만들면서 세트장을 세운 곳. 안성기·오정해 등 유명 배우와 엑스트라, 연예부 기자들이 한겨울 두 달간 이 마을에 집을 치면서 자연산 굴을 맛본 뒤 입소문이 퍼져 서울 등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다.

남포리 50가구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50여t의 굴을 채취해 1kg당 8천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 이 마을



의 굴 소득은 연간 12억원으로 가구당 2천400여만원 꼴이다. 지난해보다 작황이 20% 정도 좋고 추운 날씨로 질이 좋아져 올해는 소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식인 수하식 굴을 생산하는 고흥군 포두면 오치리·남성리·영남면 금사리 주민들도 요즘 택배주문을 제 날짜에 맞춰 보내는 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kg당 7천원(택배비 제외)에 판매되는 고흥산 굴의 맛과 양상이 뛰어났다는 소문이 퍼져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고흥군 수협 이종기(58) 감사는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수시 돌산읍은 하루 3t, 고흥군 나로도도 500kg 가량의 양식 굴을 출하하고 있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100%속 디지털대상이 다 됩니다

“케이블 TV 하나면 다 됩니다”

방송사
주요속 인터넷
동영상

Cable TV

고객문의: 062-417-6010

주요속 Cable TV 서비스

주요속 Cable TV 서비스

주요속 Cable TV 서비스

주요속 Cable TV 서비스

주요속 Cable TV 서비스